

특기고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5)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조광조는 성균관의 태학생이 된 5년 후인 34세 때 효렴(孝廉)으로 당시 이조판서 안당(安堂, 호는 영모당永慕堂, 1461-1521)의 천거를 받아 6품직인 조시서(趙紙署) 사지(司紙)로 발탁되었다. 이 때 조광조와 같이 추천 발탁된 이로서 김안국, 김정국, 김식, 박훈, 김대유, 반석평, 송흥 등이 있었다. 조광조는 같은 해에 다시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입신행도(立身行道)가 시작되어 중종 임금의 권유(眷遇)를 받아, 차서를 거치지 않고 발탁 기용되어 4년 남짓한 기간에 사헌부 대사헌(2품)에 이르렀다.

충재 선생이 중종 초기에 도학(성리학, “근사록”등을 진강)으로 경연 등에서 임금으로 하여금 개혁정치를 베풀도록 주도하였다. 선생은 연산군 시대에 사회를 일으킨 인물인 이극돈 등에 대한 추외(追罪)와 피화인 김종직 등에 대한 신원(伸寃)을 청하였고, 유교 전통의 명분 회복운동으로 노산군(단종)과 연산군의 입후(立後) 문제를 제정하였다.

또한 중종반정 직후에 정국공신(靖國功臣)의 103명 가운데 위훈(偉勳) 삭제와 훈

구척신(勳舊戚臣)들의 공격이나 무고사건(正국일등공신 박연문과 신윤무의 모반무고 사건)에 당시 사헌부 내에서 홀로 상소문을 올려 지지주의 개혁의 단초를 열었던 것 등은 새롭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선생보다 나이(1478-1548)가 어리거나 조정에 대과급제 추천으로 입신한 시기(1507년)가 같거나 늦은 후배라 할 수 있는 조광조(1482-1519, 1515년)를 중심으로 김정(金淨, 1486-1521, 1507년)과 김식(金晷, 1482-1520, 1515년) 그리고 김구(金綬, 1488-1534, 1511년)으로 한 지지주의로 급진개혁을 주장하고자 한, 즉 ‘임금의 마음을 도학으로 경연에서 바르게 하고(격군심格君心)’, ‘패업(霸業)이 아니라 왕정(王政)으로 민심을 바탕으로 정치를 베풀고(진왕정陳王政)’, ‘언로(言路)와 올바른 정치의 길을 열며(개의로開義路)’, ‘이익과 욕망의 근원을 막아 부정부패를 차단(색이원塞利源)’을 먼저 개혁정치의 원칙과 임무로 하는 것, 구체적으로 성리학의 장려와 소격서 혁파, 및 현량과(賢良科) 설치와 위훈삭제 등의 주장에서는 충재 선생도 같았다.

하지만 선생을 비롯한 김안국(金安國, 1478-1543), 김정국(金正國, 1485-1541) 형제들은 조광조 등의 지지(至治)의 유학적 이상정치의 실현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그들의 독단적이고 시의(時宜)를 감안하지 않는 급진적이며 강경한 개혁추진 처사와 훈구척신파에게 교만하게 대적하는 데에는 일정하게 반대하며 조정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이들이 듣지 않았다. 선생은 드디어 외직을 청하여 기묘년(1519년) 6월에 삼척부사 떠나갈 때, 전별하러 교외로 나온 급진적인 여러 ‘기묘명현(己卯名賢)들에게 이르기를 “요사가 일이 괴역한 것 같으니 조금 수정해야 된다.”고 당부 하였으나 김정은 의자에 기대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드디어 선생은 떠나갔다.

이 때 김구가 중국 당나라 초기의 걸출한 천재시인으로 27세에 요절한 왕발(王勃, 자는 子安, 650-676, 山西人)이 설화(薛華)를 전승하면서 지은 시를 써서 선생에게 신행(盛行; 먼길을 떠나는 이에게 詩文이 나물품을 선사하는 것) 하였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보내고 보내는데 막다른 길

많기도 하고(送送多窮路) / 바삐 바삐 떠나는데 혼자서 나무를 묻는구나(遑遑獨問津) / 쓸쓸하고도 떠나면 천리 길에(淒涼千里道) / 기껏 백년 사는 신세 처량도 하다(樓臺百年身) / 마음과 일은 똑같이 떠돌게 되고(心事同漂泊) / 살아나갈 방도는 괴롭기만 하도(生涯共苦辛) / 가는 이나 남는 이나 논할 것 없지(無論去與住) / 모두 이 꿈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네(俱是夢中人)” 김구의 초서(草書)는 당대 천하제일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 시첩(詩帖)은 필력이 더욱 호랑하고 곧게어서 세상에 드문 보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의 뜻이 너무나 애절한 것이 마치 수개월 뒤에 기묘사화가 일어난 후의 선생과 김구를 비롯한 기묘명현들의 처절한 모습을 미리 꼭 맞추어 놓은 듯하니, 김구도 그때 이미 큰 화가 박두하였음을 짐작했기 때문일까?

이 시를 지은 왕발도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조산관(朝散郎)이 되었고, 그의 문명을 들은 패왕(沛王)이 그 휘하에 두었는데, 당시 유행하던 투계(鬪鷄)를 시로 풍자

토격(諷刺射檄)하자 여러 왕들의 분쟁을 조장한다고 무고되어 쫓겨나고 몇 년 후에 하남성 곡주(穀州) 참군(參軍)으로 좌천되었다.

범죄인을 숨겨주었다는 혐의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의 아버지까지 연좌되어 1만 수 천리 남쪽 교지(交趾; 지금 베트남 하노이河內 부근) 현령으로 폄적되었다. 왕발은 떠나면 교지까지 아버지를 문안하러 여행을 떠나 강서성 홍주(洪州)를 지나며 지은 그 유명한 명문절창인 등왕각(滕王閣) 서(序)와 시(詩)가 전한다. 이 여행 도중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김구(자는 대유大柔, 호는 자암自庵)도 16세에 한성시(漢城試)와 20세에 생원·진사시 양과에 모두 장원을 차지한 천재였다. 별시문과 을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 이조, 승정원 등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기묘년 5월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다가 11월에 사화가 나자 처음 경상도 개령(현 김천군처)에 유배되었다가 수개월 뒤에 좌복이 추가 되어 바다 건너 남해에 유배되어 13년간을 보내고 가까운 임피(현 전북 군산군처)로

이배되어 2년 뒤에 풀려나 고향 충청도 예산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배 도중 삼심한 부모가 모두 죽었고 그도 이로 인해 병이 들어 곧 죽었다. 그는 다재다능하여 음률에도 능통하여 악정(樂正)을 지낸 바가 있으며, 서에는 안평대군 이용(李瑢)·양사언(楊士彦)·한호(韓濩) 등과 함께 조선 전기 4대가이다.

그가 서울 인수방에 거주했기에 그의 글씨를 ‘인수체(仁壽體)’라 한다. 중국인들까지도 그의 글씨를 사갈 정도였다고 한다.

충재 선생이 기묘년 6월에 삼척부사로 외직에 나아가던 지 얼마 안 된 다음달 7월에 마침 조정의 중요 직책인 도승지 자리가 비게 되자, 이조(吏曹)에서 선생을 수망(首望; 후보자 셋 가운데 첫째)에 올려 계청하기를 “권벌은 이미 삼척부사로 제수하신 특별이 있긴 하오나, 이 사람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지 외직으로 내보낼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홍노에 붙잡힌 진(晉)의 회제(懷帝)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바보로 알려진 사마씨의 진(晉) 나라 2대 황제인 회제(惠帝) 사마충이 죽고 그의 동생 사마지(司馬懿)가 등극하니 이 사람이 회제(懷帝)이다. 사마충이 황제로 있었던 17년 동안 진(晉)에서는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다. 첫째는 회제의 정비인 가남풍(賈南風)의 전횡이었다. 그녀는 자기 친정인 가(賈)씨를 끌어들이면서 권력을 잡았는데, 급기야 시종에서 미소년을 궁궐로 잡아들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씨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른바 8왕의 난이라는 것이다.

그 사이에 회제 출신의 유언(劉淵)은 자기의 외가를 회복시키려는 명분을 내걸고 한(漢)을 세운다. 이것은 조금 후에 국호를 조(趙)로 고쳐서 역사에서는 전조(前趙)로 불리고 있다. 이 한<전조>이 일단 유씨의 한(漢)을 회복시킨다는 기치를 내 걸었으므로 좁 전제 자기들의 지역이었던 북방에서 한이 지배하였던 중원 지역으로 내려올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는 군대를 동원하여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한<전조>의 안동대장군 석록(石勒)이 하북성의 상산(上黨)으로 내려오는데, 그 무리가 10만 명이 되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글졸이나 읽었던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이들로 군사영(君子營)이라는 부대를 만들기 까지 하였다. 또 한인으로서 자신하여 석록을 찾아가서 계책을 바치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한<전조>는 한인(漢人)을 불러 들여서 그들의 패를 이용하여 진(晉)을 공격하기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그에 비하여 진(晉)의 대항군의 모습은 형편없었다. 한<전조>의 유언이 그 아들 유충(劉聰)을 파견하여 산 서성에 있는 호관(胡閹)을 공격하게 하면서 석록을 선봉장으로 삼았다. 이 지역을 책임진 병주자사인 유언이 황숙과 환술을 파견하여 막으려 하였지만 모두 패배하고 죽었다. 다시 진의 태부인 사마월(司馬越)이

내사인 왕광과 장군인 시용과 조조를 파견하였지만 이들도 역시 패배하였다. 그 사이에 한<전조>를 세운 유언이 죽고, 유충이 황제가 되었고, 사마월도 죽었다. 회제 영가 5년(311년)에 석록이 가벼운 무장을 한 기병을 거느리고 죽은 사마월의 영구(靈柩)를 뒤쫓아 가서 10만 명을 다 잡아 죽였다. 그리고 진(晉)의 고관들을 다 잡아들였다.

이들을 잡아서 군대의 막사에 앉혀놓고 석록이 물었다. 도대체 너희 진(晉)나라는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이때에 군대의 총책임을 가진 자리에 있던 진(晉)의 태위 유언이 말하였다. 내부적으로 8왕의 난이 일어났고, 가후가 전횡하였다는 말을 하고, 그 실패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젊어서 관직을 가질 생각이 없었고, 세상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자기를 신봉하는 석록에게 황제가 되라고까지 거부하면서 죽음에서 면하기를 버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晉)이 더 이상 버틸 힘은 없었다. 그리하여 황제인 회제 사마치가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탈 수레도 배도 없었고, 진(晉)의 관리는 열에 아홉은 달아나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한<전조>의 군대는 진의 도움인 낙양으로 몰릴 듯 들어왔다. 궁궐로 들어와서 모든 보물과 궁녀들을 다 거두었다. 이때 죽은 사람이 3만 명이었다.

회제는 할 수 없이 황궁에 딸린 동산인 화림원을 통하여 빠져 나가서 장안으로 달아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전조>의 군사들이 와서 붙잡아 유배시켰다. 드디어 한<전조>의 황제인 유충이 대사명령을 내리고 진(晉)의 황제인 사마치에게 한<전조>의 관직을 주었다. 특진(特進), 광록대부로 하였으며 작위를 평야공(平野公)으로 하였다. 중원지역에 있던 한인(漢人) 왕조의 황제가 흉노족의 왕조에게 도움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그 작위를 받은 것이다.

출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결국 서진은 곧 멸망하고, 사마씨들 가운데 남쪽으로 쫓겨 가다 다시 진을 재건하여 동진을 세우지만 그 후 400년간 그들이 아만시 하던 오호가 중원지역을 지배하게 된다.

정문 충렬공 권순장

■仁山 權寧赫 (中央宗親會副會長)



본관은 안동(安東)이요, 자(字)는 효원(孝元) 호(號)는 수와(睡窩)이다. 정헌공(正獻公) 휘(諱) 후(煥)의 후손으로 목사(牧使) 박(博)의 현손(玄孫=고손, 증손의 아들)이며 풍담(楓潭) 극중(克中)의 손자이고 형조참판 진기(盡己)의 아들로 선조 40년 서기 1607년 정미에 출생하였다. 인조 2년 서기 1624년 갑자에 진사가 되고 음보(蔭補)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건원(建元) 참봉(參奉) 빙고(氷庫) 등(等)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인조 14년, 1636년 병자에 호란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江華)에 피란하였다. 이때 나라에서는 한성판윤(漢城判尹)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檢察使)로, 부제학 이민구(李敏求)를 부장(副堂)으로, 수찬 홍명일(洪命一)을 종사관(從事官)으로 각각 삼아서 강화에 들

어가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김경징은 강화를 금성탕지(金城湯池)로 믿고 호적(胡賊)이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격경없이 마음대로 방자하여 날마다 술만 마시며 주장하는 것을 일삼았다. 당시 별좌(別坐) 직에 있던 공은 김경징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하여 생원 김익겸(金益兼), 진사(進士) 심희세(沈熙世), 윤선기(尹宣去) 등과 함께 글을 보내어 책망하기를, “와신상담(臥薪嘗膽)이 지금의 할 일이요, 술을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경징은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방비와 수비를 게을리 하니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겼다. 이에 공은 강게하여 주장하기를, “임금의 안위를 알 수 없으니 나와 함께 나룻가 싸움터에 나갈 자가 있는가. 비록 이와 같

이 하는 것이 승패에는 보탬이 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홀로 평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지내며 시일을 허송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선비들이 수성(守城)을 다짐하며 모여 들었다. 창의군(倡義軍)의 이름을 의려(義旅)라 칭하고 유성증(兪省曾)의 분사(分司)에 가서 합류하였는데, 선비들이어서 적을 공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방비에는 넉넉하였다.

기세가 오르면 적은 무인지경으로 덮쳐 무자비한 도륙을 자행하는데, 이때 공은 빙궁위사(鎗宮衛士)가 되어 남성(南城)을 지키고 있었으나 전세가 불리하므로 동지들과 함께 필순(必殉)할 것을 맹세하였다. 성이 적에게 함락될 즈음 공은 두 아유를 보내어 늙은 아유를 보내어 늙은 어머니를 피란시켜 구하게 하고는 곧 성이 함몰 하기에 이르니 망극하여 통탄하기를, “종묘사직이 망하는데 살아서 무엇하리(宗社淪亡何以生)하였다. 그리고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충정공(忠正公) 김익겸(金益兼)과 더불어 화약 상자를 안고 자폭하니, 때는 인조 15년, 1637년 정축 정월 22일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국헌공 권(權)의 漢文小說

■申海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집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이미 누르하치의 환대를 받고 있는데도 또 아름다운 여자까지 배필로 얻었다. 세상에서 이 놀음을 쫓기 어려운 것을 나는 하루 아침에 얻었으니, 인생을 재미있게 즐길 따름이 아니라 어쩌하여 꼭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때부터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사라졌다.

여러 해가 지나서 갑자년(인조2, 1624)이 되자, 반역자 한운(韓濩)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하여 망명하고는, 흥립을 통해 누르하치를 만나보기를 원하고 또 흥립에게도 말하였다. ‘영공(永公)의 집안은 지난날에는 진실로 아무런 탈이 없었는데 변국(變國); 仁祖反反, 1623)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 하여 영공의 구족(家族)이 남김없이 주살(誅殺)되었으니, 영공께서는 양강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흥립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본국이 내가 세상에서 보지 않아야 할 수가 되었다. 옛사람 가운데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吳)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국인 초(楚)나라 수도 영(郢)을 침공한 오자서(伍子胥)가 있거늘, 나라도 어찌 그렇게 못하겠는가? 곧 누르하치에게 조선으로의 출병을 청하고자 하네.”

그의 첩(諜女)이 말하였다.

“첩과 어른은 아무리 하여도 살아나기 힘든 경우라도 서로 함께 하기를 기쁘고도 은밀한 마음으로 천지신명께 다짐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첩을 버리고 조선으로 떠나신다면, 저는 운봉 표범과 호랑이 같은 사나운 무리들 속에서 홀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첩은 따라가고 싶지만 아내자가 군중(軍中)에 있는 것은 병법에서 꺼리니, 마치 이리도 저리지도 못하는 경우와 같은지라, 죽어서야 이별함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자연과 사람들 우리 (주)금송은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주)금 송 조 경
(주)금 송 환 경
권정섭나무한방병원

www.gumsong.co.kr
代表理事 / 院長 權正燮

서울사무소 TEL : 02)846-2922 안양사무소 TEL : 031)466-29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3-26(2층) H.P : 016-799-9455 FAX : 031)466-2923

- 특 고 -
● 고시수목소재 제0527101호 ● 수목용비료 제0537094호 ● 수목용비료제조공법 제10-0582681호 ● 살충제 및 그 제조방법 제10-0582684호
● 권정섭 나무한방병원 제41-0145323호

세무법인 和仁

대표 / 세무사 권혁창

Mobile: 010-6304-6565
E-mail: fax21@yahoo.co.kr

- ◎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기재대리
-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리
- ◎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세무컨설팅

본 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서울특별시 능수문물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동부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과물시장 3층 41-1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